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483
2024.5.5.

2024.5.5

오늘의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_이사야 46:4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5 | 사랑나무 | 8 | 하임찬양대 / 호스피스부 | 10 | 비 / 반기독교상징들 |
| 3 |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 6 | 무지개잔치 | 9 | 목회편지 / 목사안수소감 | 11 | 십자말풀이 |
| 4 | 씻김나무 | 7 | 양재천걷기행사 후기 | 10 | 교회사용설명서 | 12 | 설문조사 심층분석 |

5 | MAY

4	S	M	T	W	T	F	S	6	S	M	T	W	T	F	S
			1	2	3	4	5	6							1
7	8	9	10	11	12	13			2	3	4	5	6	7	8
14	15	16	17	18	19	20			9	10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28	29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_ 로마서 8:16			1 교구연합수요기도회 (3교구) 근로자의날	2	3	4 봉사분과 새벽특송
5 성찬주일 어린이주일 어린이날 입하	6 대제 휴일	7	8 어버이날 4.1	9	10	11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12 아버지주일 정기당회	13	14	15 무지개잔치 석가탄신일 스승의날	16	17	18 예배분과 새벽특송
19 성령강림주일 청년주일 교사주일 양육클래스 종강	20 소만	21	22 4.15	23	24	25 소그룹분과, 양육분과 새벽특송
26 삼위일체주일	27	28	29	30	31	

5월에는 누구를 위한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날들 앞에 “주님의”를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 1면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글이든지 1면을 채울 글을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정성껏 1면을 채우겠습니다.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④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

대다수의 신자들은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들로 보냄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일상 세계에서 일하고, 생활비를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몫을 하며 산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공적 광장이라고 부를 그 영역에서의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일부분인가?

하나님과 공적 광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공적 광장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가정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삶의 공적 무대에 몹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그 무대에 관여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최초 모습을 제공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듦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의 무언가를 나타내는 일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 일 자체는 인간 본성의 본질에 속한다. 우리는 일하시는 분인 하나님처럼 일꾼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자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감독하신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공적 광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독립적인 심판관이다. 공적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감독관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진실과 투명함이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통치하신다 인간의 공적 생활은 책임져야 할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놓는다. 인간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공적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최종 결과와 운명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구속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구속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 곧 우리가 위대한 문화 명령 안에서 창조세계를 사용해 만든 모든 것의 구속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선교의 일부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자적으로 죄에 맞서 대결하도록 부름받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공적 광장의 부패는, 그것을 증발시켜 버릴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정화하고 구속할 이유가 된다.

우리는 세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구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과 용기 있게 대면하도록 부름받는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비난과 궁극적인 심판 아래 처해 있는 다른 신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공적 광장에 선교적으로 참여하기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된 세계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공적 광장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친다.

국가를 섬기도록 배치됨 요셉, 다니엘,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그들은 모두 마지막에 가서는 이방 제국 정부의 정상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까지 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과 그들이 나중에 차지한 지위의 차이는 한 가지 공통 요인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손이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일부가 된 공적 광장의 현실을 받아들였으며, 정부와 사회적 유익을 위해 건설적이고

양심적으로 일했고, 자신의 진실성을 지켰음을 배울 수 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하도록 명령받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속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모든 형태의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를 명시한다.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로부터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 및 전파로 얼마나 매끄럽게 옮겨가는지 주목해야 한다.

도시의 안녕을 구하도록 명령받음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성읍을 위해 복을 구하라고 권고한 것은 정말로 놀랍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도덕적 요구와 심판, 자비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시점마다 생긴다.

일상적인 일을 통해 생계를 꾸리도록 명령받음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공적 무대에 가장 큰 유익을 가져오므로써 성경적 복음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과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은 공적 광장에서 복음을 따라 살면서 선교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종류의 신자들은 1세기 못지않게 21세기의 세계에도 필요하다.

공적 광장에서의 선교적 대결

세상에 관여하면서 복음에 따라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들고, 영적 갑옷을 착용하고 그 대결에 개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는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은 종교적 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다. 여기에는 사적 도덕은 물론 공적 도덕도 포함된다. 도덕적 진실성은 기독교적 구별됨에 필수적이며, 결국은 공적 무대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상승배에 저항하도록 부름받는다 죄악 가득한 세상의 열망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떼어놓고 본질적인 이상승배에 빠지게 한다. 경력, 지위, 성공 같은 이상승배는 모두 공적 광장에서 가장 우세한 신들 중 하나인 소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적 광장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다. 그 전쟁의 첫 번째 과제는 적을 알아내는 것, 거기에도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고난당하도록 부름받는다 이 세상의 신들이 지배하는 공적 광장에서 단순하게 살고 일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난을 겪게 마련이다. 성경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수많은 사람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하면서 겪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론 - 공적 광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개인적 메시지

하나님은 일과 사회적 참여의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계속해서 그것에 열렬히 관심을 갖고 관여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온갖 종류의 공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서술한다. 공적 광장에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뜻한 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이 청지기직에 기여한다면, 그 일은 창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새 창조세계에 차지할 자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심껏 그분을 증거하고, 당신의 신앙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이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함몰함몰**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청소년숲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

영적부모

하나님은 우리를 청소년 교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는 서로 다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다변화된 세상을 살아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부모의 마음입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개혁하고 가르치고 평가하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교사로서 일부분만 잃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모로의 부르심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사가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교사 자신의 영적 건강입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사로의 부르심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역자와 교사의 건강만큼 자랍니다.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는 교사의 원리를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침을 멈춘다'고 설명합니다. 교사는 '가르치고 동시에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 줍니다. 청소년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워야 하는 사역입니다. 배울 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세미나에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온전함

우리를 교사로 불러 주신 이유는 아이들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이 네 가지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 가고,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매 순간 의지적으로 동행하는 청소년이 되는 데 가르침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아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 정체성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청소년이 되는 데 가르침의 초점이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동료애가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청소년이 되는 데 가르침의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여 창조물을 책임지고 돌보는 청소년이 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이 네 가지 관계가 유기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관없이 떨어져 있으면 불완전한 회복입니다.

청소년 발달과정의 특징을 알면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줍니다. 청소년은 신체가 변신 중이고 뇌가 변신 중입니다. 성이 변신 중이고 생각이 변신 중이고 사회가 변신 중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학년별 특징도 다릅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려 할 때 더 알게 되고, 알려고 노력할 때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게 함

청소년을 가르칠 때 흔한 오해는 청소년은 돌봄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

입니다. 청소년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합니다. 청소년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섬김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고 권위를 나눠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격려와 칭찬으로 세워 주는 일입니다. 청소년을 세우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청소년과의 대화는 '그냥 하기'에서 시작합니다. 계산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시도해야 합니다. 청소년과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어갈 원동력은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청소년의 눈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도 뒤따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소그룹 시간은 성경의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소그룹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여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큰 스토리에 우리의 작은 삶의 스토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청소년 교사 공동체는 '청소년 생명을 잉태하고 고통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청소년 교사와 공동체는 영혼을 살아가게 합니다. 교사 공동체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사 공동체를 풍성하게 세우는 기초는 삶을 나누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청지기 의식으로 담당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사로서 교사의 신앙, 청소년 이해, 청소년 소통, 청소년 코칭 티칭, 공동체 동역 매칭 영역을 정기적으로 더불어 학습한다면 청소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수하고 사랑을 실천한 인물들을 알려 주어 우리 청소년들이 뼈대 있는 믿음의 후손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인물과 유산을 전수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사역에서 가정을 도외시하고 교사가 청소년의 부모와 따로 걸으면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가정에 우선적으로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사가 부모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청소년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판을 돕는 섬김입니다. 교사와 부모가 함께 모여 사춘기와 신앙 교육에 대해 배우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목적은 청소년을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일이 아니라 청년부에 입학시키는 일입니다.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이어 가도록 교사 동동체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교사,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우리가 청소년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청소년 교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청소년과 다음 세대에 놀라운 선물입니다!

함줄함울 /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정석원, 홍성사)

장애인지원
장애인사역부

어려운 인생길에 만난 주님의 가족들

샬롬♥ 올해도 감사로 장애인 주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장애인 주일은 어려운 인생길에서 만난 주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 '그동안 수고 많았다.' 위로할 수 있었고, '사는 것 힘들었지.' 고통을 나눌 수 있었고, '곁에 있어주어 고맙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예배의 성경 봉독(김환경 집사, 임혜현 집사), 대표 기도(김성규 집사), 수어 찬양(에바

다), 영상 뉴스(이세원 성도, 김은영 집사)의 순서를 맡아 준비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장애인사역부에 속한 잇딤나무(지체장애인)·에바다(농아인), 사랑나무(자폐·지적장애인)의 부서가 있습니다. 매 주일 에바다 예배(10:00/제1집회실)와 사랑나무 예배(11:00/사랑나무실), 잇딤나무 모임(12:00/제3집회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장애인사역부 김은선 목사, 사랑나무 노홍주 목사)

장애인지원
장애인사역부

잇딤나무와 함께

우리 부부가 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처음 왔을 때는 부서사역을 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겨자씨모임만 참여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처음 소개받은 곳이 장애인사역부였다. 장애인사역부에는 지체장애인과 농아인, 발달장애인 부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나는 지체장애인 부서(잇딤나무)와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났다. 그러니 이제 검은 머리였던 우리 팀원들이 모두 머리카락이 희끗하게 되어가는 중에 있거나 이미 흰머리가 되었다. 그동안 봉사자와 장애인 중에서 몇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갔다. 이젠 관계없는 얘기지만 먼저 간 이들이 가끔 보고 싶으면 혼잣말을 한다. "조금만 기다려요~ 얼마 있으면 나도 갈 거야~ 내가 가면 환영해 줄 거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자연스레 저절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다.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채팅방에 그 일을 올리고 혹시 본인이 올리지 않으면 다른 이가 올려주기도 하면서 서로 기도한다. 교회의 다른 공동체들도 그리하겠지만 여기 잇딤나무 공동체는 더 특별하다. 구성원 변동이 별로 없이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유대감이나 신뢰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잇딤나무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한다. 눈물로 기도해 주는 잇딤나무 지체들이 있으니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또 응답해 주심도 여러 번 체험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응답이 있기도 했으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드는 마음은 봉사자나 장애인이 타인이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의 동반자이며 동역자라는 마음이 크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내게 큰 감동을 준다. 비장애인도 인생길이 쉽지는 않는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얼마나 더 힘겨운 일인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열심히 올바르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나부터가 먼저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따름이 없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삶이 예쁘게 보이고 감사한 것이다.

잇딤나무 공동체는 매 주일 3부예배 후 1층의 제3집회실에 모여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친교를 한다. 그리고 매 수요일 오전 10시에 Zoom으로 김은선 목사의 인도로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담아가고 있다. 또 봄과 가을엔 야외예배를 다녀

오곤 했는데, 한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작년 배운환 목사의 추진으로 '제주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그 전에는 2박3일 여행 같은 건 엄두가 나지 않아 한 번도 시도를 못해본 일이었는데 배운환 목사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척척 진행했다. 배운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지순례를 무사히 다 할 수 있게 해 주실 텐데 왜 걱정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정말 그 때, 비 오는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피심을 시시각각 눈으로 보면서 정말 안전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제주비행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해마다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편으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심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풍성함을 나누었기에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뿐이다.

이런 잇딤나무 공동체에 장애인으로나 봉사자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3부 예배 후 제3집회실로 오시면 된다. 작년에 새로 들어오신 휠체어 장애인이 있는데 금방 쉽게 친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묶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니 언제라도 오시면 대환영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교회 교우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잇딤나무 가족들은 어디서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의 엘리베이터는 모두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기 어려운 잇딤나무 가족들은 대예배실에 올라가지 못하고 1층의 제3집회실이나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다. 그러니 휠체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보시고 엘리베이터의 자리를 양보해 주신다면, 그런 작은 일이 큰 도움이 되고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를 돕는 일이 되니 그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장애인사역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누리기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를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귀히 여기며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민자 권사 / 잇딤나무 지도권사

장애인지원
사랑나무부

“요래 이쁜 게 다 있노”

제가 사랑나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주보에 실린 사랑나무 교사 모집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자폐와 지적장애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저로서는 누가 지원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는지 계속 광고가 올라오자 거룩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찾아간 사랑나무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자폐와 지적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여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제 경우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영적 자폐를 갖고 있으며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는 발달장애자이니 사랑나무 친구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고 오히려 제가 사랑나무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사순절을 제대로 지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사랑나무 친구들과 사순절 묵상을 나누면서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활의 의미를 사랑나무 친구들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모든 장애와 속박에서 벗어난 사랑나무 친구들과 재회했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지금은 오직 아멘과 할렐루야만을 소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명서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수다스러울지 기대가 됩니다. 자폐 화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세원이는 천국에서도 유명한 화가로 활약하고 있을 테고 사랑나무

식구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테지요. 잠실 ‘공유’라는 별명을 갖은 잘생긴 희준이 역시 자신이 왜 땅바닥에 앉기를 좋아하고 봉헌 드리자고 하면 예복을 입기 싫어 도망 다녔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따라쟁이 건식이는 주변 사람들을 웃기기를 좋아하고 잘 하는데 천국에서는 유명한 개그맨이 되어 우리 모두를 배꼽 빠지게 해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눈 마주치고 하이파이브만 해줘도 로또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도현이의 속마음도 그때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겠지요.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성원이는 누구는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누구는 그냥 지나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성원이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나무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목사님을 모른 채하면 어떡하지 은근 걱정을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앉아 계신 담임목사님에게 먼저 다가가 목을 껴안아줘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사랑나무 처음 참석했을 때 성원이가 다가와서 덩석 안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습적인 성원의 따뜻한 포옹을 받고 나서 저는 사랑나무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간극장에서는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님 이야기가 방영되었는데 그 제목이 “요래 이쁜 게 다 있노”입니다. 사랑나무 친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사랑나무 친구들 만나시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요래 이쁜 게 다 있노” 라구요

염인호 안수집사 / 사랑나무부 부장

장애인지원
사랑나무부

천국이 이곳에 있습니다

2007년 가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라디오를 통해 중증지체장애인을 돌보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집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갖길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에서 후원을 독려하며 알려준 전화번호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씩씩한 목소리의 선생님은 저의 부끄러운 후원금에도 반색하며 감사했고, 저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 하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10년 정도 후원을 이어 오다가, 선생님이 옮긴 장애인 센터에 가족이 함께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동화구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선생님은 센터에 있는 낡은 동화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어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동화를 들려주고 색종이를 가져가 이것저것 만들면, 선생님은 아이들 손에 가져가 비비고 선생님이 손 안에 아이들 손을 넣고 꼭 쥐어 주기도 하며 마음을 다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에게 ‘소용’이라는 단어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동화를 들려주고 색종이를 만지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 마음을 다해 아이들의 즐거움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년간 중증지체장애인과 함께 한 시간을 통해 남편과 저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부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장애인 부서로 가자고요.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봉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

는데,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잘 보이지도 않는 핑계까지 끌어 모아 3년을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랑나무실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무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배는 경건과 동의어입니다. 경건은 절제이고요. 어쩌면 정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나무 예배에서는 모든 허울을 벗어 던지고 오롯이 기뻐하게 됩니다. 감격으로 가득 찹니다. 마이크를 잡고 성경 본문을 읽는 친구들을 향해 기뻐하며 박수하고, ‘아멘’하는 친구의 목소리에 함박웃음 짓습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했던 때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사랑의 마음이 차올라 터질 듯합니다. 세상 기준은 모두 다 내려놓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사랑나무 예배를 통해 친구들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사랑나무에서 봉사한다는 말이 어색합니다. 봉사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인데, 저는 사랑나무에서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고 힘을 얻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사랑나무라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슴 벅찬 선물을 주셨습니다. 매주 손뼉을 마주치며 띄우는 해사한 웃음 앞에 사랑나무 친구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잎이 무성해지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숲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숲 안에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고 춤추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이곳에 있습니다.

최정은 집사 / 사랑나무부 교사

**전교인 무지개잔치 입장 팔찌로 해피권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후 2시 30분)**

양재천 산책로 걷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들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

봄의 전령인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들은 벌써 피었다가 졌다. 다음 주자인 영산홍, 철쭉, 라일락, 작약 등이 산책로를 따라 꽃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새봄에 피어나는 꽃들은 색깔이 고울 뿐만 아니라 대개가 잎이 돋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나 세상을 꽃의 대궐로 만들고,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 어떤 화가가 화폭에 물감으로 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색깔을 따라갈 수는 없다. 지저귀는 새소리 귓가에 청량하고, 얼음 풀린 하천에선 잉어 떼가 경쟁하듯 물살을 제치며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을 실감한다.

예전에는 해마다 이맘때면 온 교인들이 교회를 출발하여 양재천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들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조금 일찍, 곡우를 하루 지난 4월 중순에 시행했다. 비가 내려 우의를 입고 우산을 쓰고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도 식물과 곡식에게는 때마침 내리는 단비여서 기쁜 마음이다. 비 오는 날 학교 길에 나란히 발맞추던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들이 산책로를 삼삼오오 걸어가는 모습도 예쁘고, 아름답게 추억을 연출하는 광경이 양재천에 펼쳐진 것이다.

오늘의 행사는 십년 만에 부활한 행사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그동안은 코로나와 교회 내부사정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금년에는 남선교회에서 주관하고 산상수훈회와 안수집사회의 적극적인 추진과 여전도회의 지원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참가한 교회성도들이 백오십을 넘긴 가운데 많은 장로님들과 일부의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서 동참하였다. 전체적으로 길이 평탄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비장애인들이 한명씩 붙어서 보살펴주니 가능했지 않나 생각된다. 장로님들이 대거 참석하여 봄을 조성하였음에 비하면 목회자분들의 참여는 아쉬움이 남았다.

반환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상수훈회의 소개와 함께 간증시간을 가졌다.

산상수훈회는 남선교회의 산행을 통한 친교모임이다. 매월 3주차 토요일에 산행을 하는데 평균 30~40명이 모이고 있다.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험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는 지양하고 둘레길, 공원 위주로 산행 또는 걷기를 하고 주변 맛집에서 중식을 한 후 해산한다. 경관을 즐기고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평소 잘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참가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회원의 부부 또는 가족 동반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산상수훈회 임원인 신 집사의 간증은 재미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코로나 전의 일이니 한 5년은 넘었을 것 같다.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수인원이 많아 혼잡한 가운데 국수를 받아서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다. 국수를 한 젓갈 먹는데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다. 처음에는 국수에서 나는가 싶어 냄새를 맡아보고 이어서 양념간장, 김치를 확인해도 모두 아니었다. 그런데 앞 사람을 쳐다보니 차림새가 정상이지 아니었다. 옷 전체가 피죤피죤하고 언제 세면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곁에 앉기를 거부하고 이런 복잡한 와중에도 자리가 비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나머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국수를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지로 참아가며 끝까지 동석식사는 하였지만 한마디 대화도 하지 못한 채 보내버린 나의 행태가 후회스러웠다. 용케도 알고 주님의교회를 찾아왔는데 싸늘한 눈초에 황급히 가버린 그 사람은 그 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따뜻한 대화도 하고 국수도 더 갖다 드리고 다음에도 또 오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아닐지 후회가 막급이다.”

교회로 복귀하여 오찬을 하였다. 여전도회를 주축으로 봉사요원들이 차려준 식사는 말 그대로 꿀맛이었다. 약 두 시간 정도의 걷기를 한 뒤 배가 출출하기도 했지만 마치 집밥 같이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어서일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행사를 극찬하고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걷기행사가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이 시대의 우리가 좋은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을 뿐이다. 이왕이면 환경정화나 찬송 및 간증을 겸해서 한다면 더 좋겠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연을 가르치고 체험케 한다면 일석다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일개 부서나 친목단체가 주관하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행사로 거듭나야 하며, 지역사회로 파고들어 교회와 주민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상생해야 한다.

행사가 끝나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이벤트성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품을 준비하여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새기며, 행사 간 찍은 사진을 모아 콘테스트를 함으로써 추억을 되살리는 방법 등이다.

오늘의 양재천 걷기행사는 대성공이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 가족들이 참여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조그만 자극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인들은 서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를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전선재 안수집사/3교구



하임찬양대
춘계수련회

봄, 사랑 하나 봄

자연의 푸르름과 화사한 꽃잎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새들의 목소리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울려 퍼질 때면, 마음도 어루만져지듯 청량감이 솟아오르는 기분이 드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활기찬 아름다움의 계절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온 사역부서가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주관 천국환송예배에서 고별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하임찬양대"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 가평 우리마을에서 "봄, 사랑 하나 봄"이란 주제로 춘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 12:15 말씀을 사역 중심에 두고 현재 약 30여명이 봉사자를 하고 있는 "하임찬양대"는 대부분 천국환송예배가 이른 아침 또는 새벽에 드려지게 되는데 매주 1회 이상의 사역에도 봉사자 대부분이 참여하여 유족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전해주는 감동의 찬양대입니다.

“봄, 사랑 하나 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그동안의 수고를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품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장례예식에서의 주의해야 할 용어들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시편 133편으로 말씀을 전하신 이종성 목사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연합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줄 때 소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욱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참여하지만 매 번 위로 받는 사역 현장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임찬양대는 매월 격주 수요일 저녁 6시에 한 시간 가량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사랑을 나눌 찬양대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집사/2교구

호스피스부
사랑과 소망의 모자 전달

작은 사랑의 꽃씨를 심고 왔습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에서는 4월 30일 서울대학병원 암병원 완화의료 병동, 중증 회귀 난치 질환으로 치료 중인 소아 청소년들이 치료받고 입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 꿈틀꽃씨, 뇌 병변 어린이 환자들이 입원한 넥슨 어린이 통합케어센터, 3곳에 사랑과 소망의 모자(여름용 모자 67개와 울 모자 74개) 141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 3월초 서울대학병원 암병원 완화의료병동의 환우들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에 사랑의 모자를 보내는 호스피스 섬김이 가능할지 묻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해오던 사랑과 소망의 모자뜨기 사역이 생각나서 함께 의논하고 배운찬 목사님과 임원들의 기도와 결단으로 시작하였지만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만한 물가 한편 20여석을 차지하고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8주간 동안 모여서 배우고 집에 가서 오랜 시간 애쓴 결과, 정말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3월 10일 사순절 넷째 주부터 시작했던 사랑의 실타래가 기도와 사랑으로 오천 번 이상 한 땀 한 땀 씨줄과 날줄로 크기와 모양과 여러 색으로 엮

어져 한 작품이 나올 때마다 서로를 칭찬과 격려로 힘주며 20여명 회원들의 하나도 똑같지 않은 명품들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소망 작품들이 탄생되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수고로 완성된 작품은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 냄새가 없는 소독용 페브리즈로 꼼꼼하게 소독하고 다림질로 예쁘게 손질해서 사랑 나무실에서 빨래걸이에 걸어 바싹 말려서 크기별로 비닐포장한 후 대, 중, 소 스티커 붙였습니다. 병원관계자들도 세심한 배려와 진심어린 섬김의 모습에 감동으로 모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모자 뜨기를 위해 각당복지재단 무지개 호스피스에서는 호스피스기관 어디에서든 “사랑과 소망의 모자”를 요청하시면 섬기면서 나눌 수 있도록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모자를 나눠드리고 병원을 나오면서 “주님, 이 모든 시작부터 마치는 일들을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교회 사역자들의 수고의 손길들을 지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호스피스부



형제교회
대구소망교회

섬세하신 하나님

샬롬!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해 12월에 주님의교회 부목사를 사임하고 대구소망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대구 및 교회 정착을 잘 이뤄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소망교회를 잠시 소개해드려야겠어요. 대구소망교회는 1999년 11월 14일에 설립되어 약 24년간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 섬겨온 교회입니다. 대구소망교회는 ‘꿈과 사랑이 있는 대구소망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사랑’으로 이뤄가는 교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이웃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개월간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하며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섬세하게 제 마음을 늘 만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감동을 따라 주님의교회를 떠났고,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대구소망교회로 왔지만, 매일 목회의 걸음마다 걱정과 두려움, 피곤과 실망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섬세하게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또한 ‘교회의 상황을 섬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에도 이전 담임목사께서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여 사택에 계셨고, 저의 사택을

준비하느라 교회는 적지 않은 빚이 생겼으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지난 4월 말 이전 담임목사께서 새로운 곳으로 잘 이동하셨고, 4월 중순에 대출을 다 갚았으며, 교회에 대한 비방보다 칭찬의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시편 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마지막으로 “성도와 교회의 갈 길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2월부터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때를 따라 성도들과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이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전의 회복에 대해, 인생과 신앙의 광야에 대해, 참된 제자에 대해 성도들과 나누며 예배, 전도, 교제, 봉사,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26(주일)에는 여러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을 다 초청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교회의 사역을 주관하심을 느낍니다. “시편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배운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 선교적 목회를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생각나실 때 대구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류경민 목사 / 대구소망교회**

목사안수소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스물 다섯의 나이에 단기선교를 처음 가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눈망울에 반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나도 모르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서른 다섯에 단기선교 팀장으로 불러주시고 이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영화처럼 보여주시고 약속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늦은 나이, 왜 신학을 하냐고, 결혼은 언제 할거냐고 꾸짖고 으르며 달래던 지인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경험하며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또 사역의 길에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쓰러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말씀 붙들고 나의 기쁨은, 나의 마음의 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홍주 목사**



목사안수소감

예수님 닮은 목회자로 살아가길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수 받는 날 친한 선배님이 우스갯소리로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 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친한 형들이 결혼하는 날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자유인이 아닌 유부남으로 살아가는 거야”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목사라는 것은 타이틀이 아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으로써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가 있기에 제가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새롭게 이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 신분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저에게 안수식은 단순한 예배가 아닌, 안수 예식, 즉 목사로 사명을 받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큰 기쁨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 단계이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해야 하며, 더욱 가까워져야 하기에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귀한 목회자로서의 여정을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좋은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지민 목사**



교회사용설명서⑨

새가족 등록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에서는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새가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모신다는 말은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여서 다른 교인들과 가족처럼 지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교회는 등록 교인이 1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와 연령대로 교구를 나누어 서로 더 가깝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구마다 담당 교역자가 있어 새가족의 신앙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교구	지역	담당 교역자(연락처)
1	송파구(잠실7동 우성APT, 아시아APT),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	박주영 목사 (010-3347-0390)
2	강남구(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서초구(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동작구(사당동), 관악구, 구로구,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인천시	박민규 목사 (010-8790-9690)
3	송파구(잠실1, 2동 엘스APT, 리센츠APT, 가락동, 헬리오시티, 문정동 웨비라APT), 종로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산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4	강남구(역삼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서초구(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동작구(사당동 외),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특수(장애인)	배윤환 목사 (010-3138-3262)
5	송파구(신천동 장미APT, 파크리오APT, 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위례, 경기도 광주시	윤경수 목사 (010-9407-3709)
6	송파구(풍납동), 강동구(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구리시, 하남시(위례 외),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차승천 목사 (010-7544-3945)
7	송파구(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잠실3동 트리지움APT, 갤러리아APT, 레이크APT, 주공5단지), 이천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한시영 목사 (010-4822-4523)
8 (젊은이)	20~30대 부부(84년생 이하), 36세~40대 미혼자(84~88년생)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청년부	~35세까지 청년(미혼자)	정구민 목사 (010-9406-9641)

사용 방법

새가족 등록은 현장 등록과 온라인 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 오시면 매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층 로비 새가족 안내 데스크에서 현장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쿼알 코드를 통해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양육 과정을 통해 교회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새가족 양육 과정은 매월 첫째주에 개강하며 총 4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오전(10:30~11:30), 오후(12:30~1:30)의 2개 반이 있습니다. 4주 차까지 양육 과정을 마친 새가족은 넷째주 주일 오후에 있는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여 교구 목사와 교구 장로, 교구 권사와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교구 목사와 면담을 통해 같이 신앙의 길을 동행할 가족이 될 겨자씨를 안내받게 됩니다. 주님의교회 겨자씨는 교구에 속하며 대개 지역 단위로 매주 모임을 갖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모임을 함께 하시다보면, 교회의 흐름과 살림살이에 대한 온갖 정보와 친교를 나누시면서, 신앙생활의 알콩달콩한 재미와 케미를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글함글

비기독교

반기독교 상징들 ①

여섯가지 색깔의 무지개

무지개는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굴절·분산되어 나타나는 기상학적 현상으로 보통 일곱 색깔의 호 모양이다. 파장에 따라 수많은 색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에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일곱 색깔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무지개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후 다시는 그같은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표시로 보여주셨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구름 속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세워진 약속이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일부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978년 6월, 당시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인 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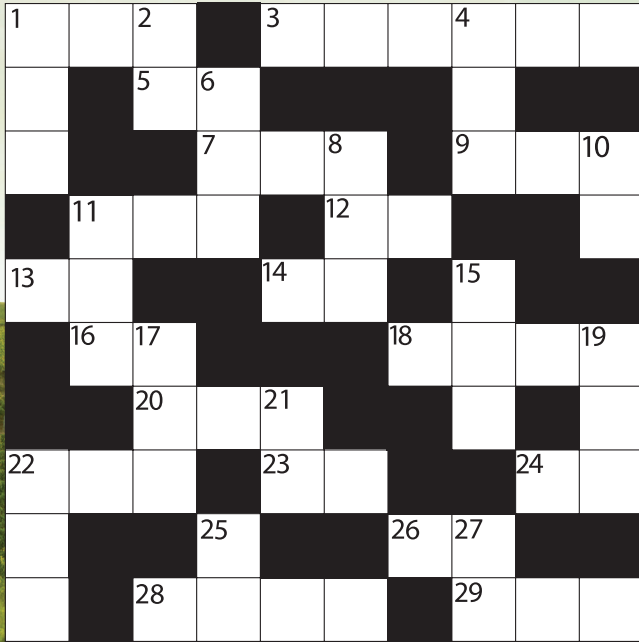
밀크가 디자이너인 길버트 베이커에게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위한 깃발을 만들어 달라고 위임했다. 그 전까지는 분홍색 역삼각형 모양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이었다. 베이커는 다양한 정체성의 화합을 표현하기 위해 무지개를 이용하면서 일곱 색깔에 분홍을 더한 8색 무지개를 디자인했다. 이후에는 분홍색 천과 페인트를 구하기 어렵다는 실용적인 이유와 퍼레이드 때 길 양쪽에 3가지 색깔을 균형있게 배치하기 위한 이유로 분홍과 남색을 뺀 무지개를 만들어 지금까지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섯 가지 색깔의 무지개라 하여 일명 육지개라고 한다. 그들이 혼드는 이 육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무지개와 분명히 다르다.

차이를 분명히 안다면, 바른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무지개라고 다 같은 무지개가 아니다. 무지개를 사용할 때 색깔의 개수를 잘 살펴보자.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 진짜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에스겔 편

이번 호는 <에스겔> 편입니다. <에스겔>의 저자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 에스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에스겔의 경고와 예언,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2호 예레미야애가 편 정답



가로 힌트

- 비가 내린 후 태양의 반대쪽 공기 중의 물방울에 태양 광선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기상 현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겔 1:28)
- 바란 광야에 있는 샘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원할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던 곳이다. (겔 48:28)
- 하늘과 땅.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겔 8:3)
- 성전의 문. <에스겔>에는 여호와와 영광이 이곳에 이르러 드러난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있다. (겔 47:1)
-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하며 쉬는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기원한다. (겔 20:12)
- 빛의 대가로 맡긴 물건. 빛을 갚지 않을 때에는 빌려준 사람이 이것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겔 18:7)
- 지구를 덮고 있는 지각에 오래 누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 바다에서 일어날 때에는 해일이 발생해서 해안가를 덮기도 한다. (겔 38:19)
-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함. '하다가 붙어 마음이 애달프게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겔 24:25)
- 동서남북의 네 방향.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둘러싼 모든 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도 쓰인다. (겔 6:13)
- 노아의 손자 마곡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르는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 <에스겔>에서는 세상의 끝에 사는 민족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다. (겔 38:2)
-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르는 이름. 솔로몬 사후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겪고 나서 회복된 공동체를 이르기도 했다. (겔 3:4)
-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겔 22:27)
-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있던 강국.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에스겔과 같은 여러 선지자들은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겔 17:20)
- 크게 절망하여 내쉬는 숨. 어떤 일로 절망하거나 원통하여 내쉬는 한숨을 말한다. (겔 9:4)
- 용맹스러운 사람. 2017년 이후 육군에서는 병장 이하의 계급을 가진 병사들을 두루 이렇게 부르고 있다. (겔 27:11)
- 아궁이에 걸어 많은 양의 음식을 익히는, 크고 우묵한 조리기구. 한국에서는 흔히 '○○술'이라고도 하며, 이것에 쌀을 넣고 장작불로 밥을 지으면 맛이 좋다. (겔 11:3)
-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수님이 '선한 ○○○○ 사람'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적이 있다. (겔 16:51)
-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조리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재료까지 두루 포함하여 말할 때가 많다. (겔 4:10)

세로 힌트

- 나라 사이에서 사고파는 물건. 주로 큰 항구나 공항을 통해 운송된다. (겔 27:34)
- 강보다는 작고 시내보다는 큰 하천. 서울 종로와 을지로 사이에 있는 청계천의 원래 이름이기도 했다. (겔 32:6)
- 요단강 서쪽 지역의 오랜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뜻한다. (겔 16:3)
-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 성막 안에 비치된 도구나 가구, 제물로 올리는 예물 등을 말한다. (겔 42:13)
- 문 아래에 바닥보다 조금 높게 문을 받치도록 댄 곳. 또는 문설주 사이 문이 열고 닫히는 공간을 이르기도 한다. (겔 9:3)
- 여섯과 여덟 사이의 숫자. 무지개는 흔히 ○○ 색깔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겔 39:9)
- 다른 힘의 작용이 없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겔 44:31)
- 제사장 가문 부시의 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30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다. (겔 1:3)
- 야곱의 열 번째 아들의 후손들이 거하던 지방. 잇사갈과 갓 사이에 있었다. (겔 48:26)
- 지중해에 있는 섬. 천막을 만드는 천의 생산지였다. (겔 27:7)
- 절망하거나 크게 후회하며 탄식함.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연천을 지나는 같은 이름의 강이 있는데, 이 강은 '큰 여울'이라는 뜻이다. (겔 6:9)
-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미하며, 에스겔 시대에는 이집트의 제26왕조 4대 왕이었다. (겔 29:3)
- 사람 얼굴 눈썹 위에 있는 넓은 공간. 구약 시대에는 구분을 위해 이곳에 표를 하기도 했다. (겔 3:7)
-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성격, 품성 따위를 두루 부르는 순우리말. (겔 44:9)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심층분석 시리즈 3

겨자씨모임

지난해 실시한 창립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는 2018년 설문조사 이후, 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었습니다. <함줄함울> 477호(2023.12.31)에 포괄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했지만, 교회의 현황과 미래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벽예배", "수요예배"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겨자씨 모임'을 심층 분석합니다.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세 번째 심층분석의 주제는 겨자씨모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예배', '구역모임'이라고 하는 교구 내 지역 단위 소모임을 주님의교회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인 겨자씨로 보아 '겨자씨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겨자씨모임의 기원은 초대교회 설립 이후 사방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삼삼오오 가정에 모여 드린 작은 예배로, 루디아의 가정 예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예배가 좋은 사례입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에서는 '속회'라는 이름으로 구역예배를 드렸고, 장 칼뱅의 장로회에서는 신앙교육을 위한 소그룹운동으로 구역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여전도회가 먼저 구역회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성경공부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여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겨자씨모임에 참여합니다.

2023년 전교인 설문조사에서 겨자씨모임에 소속되어 있다고 답한 분들은 65%였는데, 2018년 설문에도 응답했던 분들의 경우 72%여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의 소속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겨자씨모임에 절반 이상 참석하시는 분들은 49%, 2018년 응답한 분들의 경우 57%이어서 참석률도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일까요? 모임이 있을 때 절반 이상 참석하시는 분들의 참석률을 연령대로 볼 때 66~75세(31%) > 50~60세(26%) > 61~65세(22%)의 양상을 보이며, 남성은 66~75세(35%) > 61~65세(20%) > 50~60세(18%), 여성은 66~75세(30%) > 50~60세(29%) > 61~65세(22%) 순입니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율에 비추어 보면, 남성은 19~29세(33%) → 30~39세(46%) → 40~49세(24%) → 50~60세(36%) → 61~65세(47%) → 66~75세(49%) → 76세 이상(32%)의 흐름을, 여성은 19~29세(39%) → 30~39세(24%) → 40~49세(34%) → 50~60세(60%) → 61~65세(68%) → 66~75세(63%) → 76세 이상(39%)의 흐름을 보입니다. 요약하면, 남성의 경우, 사회생활 초기에는 여성보다 참석

률이 높지만 직장에서 높은 직책에 이르면서 참석률이 낮아지다가 정년 퇴임 후 참석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에 집중할 30~40대에는 참석률이 저조하다가 50대 이후 참석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59%)가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39~44%)보다 참석률이 높은 이유도 시간 활용이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존직(68%)이거나 사역부서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70%)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겨자씨모임 참석률이 크게 높습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신앙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 응답자(57%), '하나님의 선교'의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응답자(54%), 사역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57%), 주님의교회가 교인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56%)의 참석률도 전체 응답자(49%)보다 높습니다.

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응답자(50%),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한 응답자(51%)의 참석률은 전체 참석률과 비슷하며, 지역별 거주지에서도 45~50%의 비율을 보여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모태신앙 응답자의 참석률(43%)은 전교인 참석률보다 낮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신앙심이 깊은 경우보다는 교인 사이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모임을 통해 서로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일상의 어려움과 위로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겨자씨모임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문조사팀



교회일정

5/5 (주일)	성찬주일, 어린이주일
5/11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5/12 (주일)	어버이주일, 공동의회(24년도 향존직 선거 1차), 정기당회
5/15 (수)	무지개잔치
5/19 (주일)	성령강림주일, 청년주일, 교사주일, 양육클래스 종강

알립니다

• 2024년 공동의회 향존직 선거(1차)

일시 : 5/12(주일) 오전 8:00~오후 3:00

방법 : 문자로 전송받은 링크 통해 전자투표 또는 지하(다목적홀)에서 전자투표

선출인원 : 장로(10명), 안수집사(20명), 권사(20명)

* 공동의회 : 5/12(주일) 1부 예배 직후

• 2024 전교인 무지개잔치

일시 : 5/15(수) 오전 10:00~오후 3:00

주제 : 미션 메이커스(롬 10:15)

장소 :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대상 : 주님의교회 전교인(유유청청 및 1~8교구), 지역주민

특강 : 차길영 대표(세브에듀 대표 및 다니엘기도회 강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